

# ‘동굴 품은 갤러리’서 한희원·이이남을 만나다

요즘, 어둠의 시간에 광주전변을 지나다 보면 밤에도 환히 불을 밝힌 건물이 눈에 띈다. 양림파출소 옆,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입구에 자리한 반달 모양의 주황색 건물이다. 옆으로 길게 뻗은 건물엔 카페와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옥상 위 넓은 루프탑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사로잡는 건 쇼윈도에 걸린 그림들이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S' 전경.

## 10월14일까지 '갤러리S' 10주년 기념전

### 한희원, 신작 20점 전시... '조춘도-이이남DNA' 광주 첫 공개

남은 물결들이다. 특히 쇼윈도에 걸린 대형 작품 '검은 의자'는 검은색과 회색이 주조를 이룬 묵직한 작품으로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줬을 소파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한 작가 하면 떠오르는 두터운 마티에르와 화사한 색감의 정물화와 풍경화가 만날 수 있다. 특히 카페 곳곳에 전시된 작품은 독특한 카페 구조와 어울려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이이남 작가는 유명한 고전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흐의 '자화상'과 '별이 빛나는 밤에'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첨단 기술과 유쾌한 상상력을 담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올해 서울 사비나미술관에서 전시돼 화제를 모았던 작품으로 광주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조춘도 이이남 DNA'는 자신의 DNA 염기 서열을 알파벳으로 시각화한 영상작품으로 작가의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화면 속을 떠다니는 DNA들이 서서히 모여들어 중국 북송 시대의 화가 곽희의 명작 '조춘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은 흥미롭다. 그밖에 인기높은 피규어 건담을 재해석한 'Structure 건담2'도 만날 수 있다.

갤러리S는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터라 늦게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야간조명 아래 보여지는 작품은 또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이명자 관장은 이 곳을 장르의 경계가 없는 복합문

화공간으로 꾸릴 예정이다. 양림동의 초입에 있는 갤러리가 양림동 투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대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광주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루프탑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이남 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임윤찬 리사이틀, 리스트 '초절기교'

10월 1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열일곱 소년의 연주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피아니스트 임윤찬(17) 리사이틀 '초절기교(超絶技巧)'가 오는 10월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임 군의 스승인 손민수는 그를 가르켜 '시간 여행자'라고 일컫는 정도로 'Old School(전통적인 학파)' 스타일을 추구하는 임 군은 이번 독주회에서 리스트의 '소네트'에 이어 '초절기교 연습곡'을 인터미션 없이 선보인다.

그는 리스트의 '페트라르카 소네트 47-104-123번'을 먼저 들려준 후 이어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연주한다. '초절기교 연습곡'은 단순한 연습곡이 아닌 리스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 곡으로 작곡가 슈만은 '이 작품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리스트 그 자신뿐일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임 군은 만 15세의 나이로 2019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했다. 2017년부터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손민



피아니스트 임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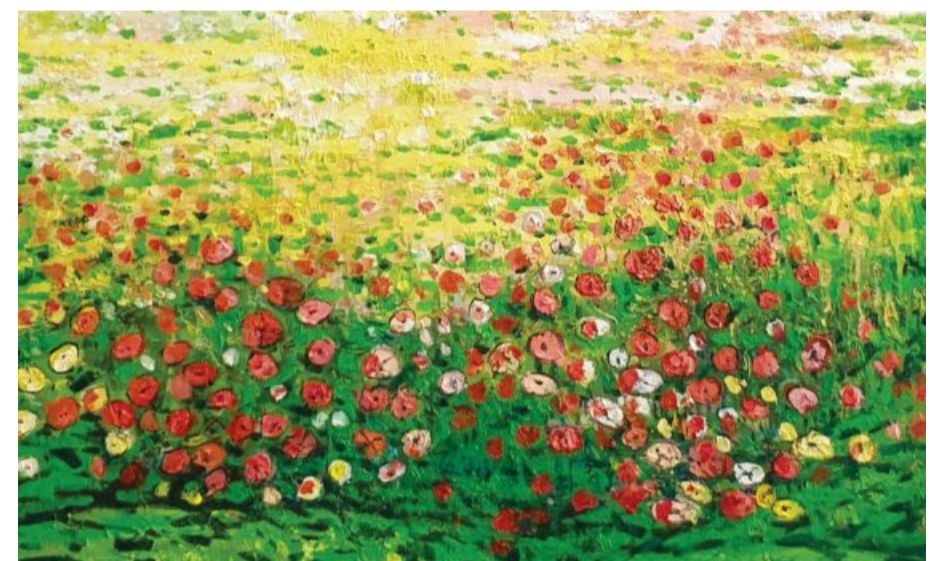
수를 사사하며 2020년 2월 음악과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한편 임 군은 오는 12월24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무대에 협연자로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전석 5만원. 문의 062-360-84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화사한 풍요로움 '아름다운 향기'

지연심 개인전, 30일까지 LH휴광갤러리



'정원2'

고즈넉한 산사로 이어지는 길 위의 푸른 나무, 싱그러운 초록색이 인상적인 강가의 나무, 흐드러지게 핀 안개꽃.

서양화가 지연심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유화 작품들은 밝고 화사한 색감과 풍요로움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의 삶에 잔잔한 위로를 전한다.

다채로운 꽃들이 수줍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나무 그늘의 모습 등은 관람객들에게 한 템포 쉬어갈 것을 권유한다.

오랜 공직 생활을 했던 지 작가는 고향 영광에서 처음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점차 그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1991년 첫 도전이었던 공무원미술대전에서 입상한 후 이어 열린 세종문화회관 그룹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림 그리기가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된 지 작가는 자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늘 화폭에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전해주는 '꽃'을 주제로 작업한다.

지금까지 1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25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양림동 '갤러리S'에서 열리는 한희원·이이남 초대전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지구를 위한 창작백신 'ACC 소셜디자인 랩'

24일~11월 7일 ACC 라운지·유튜브 채널 진행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구환경에 유해한 탄소 발생을 줄이면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다양한 분야 창작자와 연구자, 혁신가 등이 머리를 맞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 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전남대, 사업단장 김재국)이 함께하는 'ACC 소셜디자인 랩' 사업이 그것. 프로젝트는 24

일부터 11월 7일까지 ACC 라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진행된다.

소셜 디자인 랩은 '지구를 위한 창작 백신'을 주제로 열리며 이해·실험·개발·소비·정착 등 5개 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오는 24일·10월 1·8·15일 등 총 4회 프로그램에는 배우 겸 환경운동가 박진희 등을 비롯해 디자이너·창작자·기업가 12인(팀)이 나서 지속가능한 실천이 왜 필요한지를 ACC 라운지와 ACC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한다.

내달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플라스틱 가공 기



배우 박진희

를 활용해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프레서스 플라스틱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지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공예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준전문가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호남·제주권 10개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과 연계, 20개 팀이 참여하는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대회'는 패션·공학·공예 등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며, 우수팀엔 내년 ACC에서 전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